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3. 30.(목) 06:00 < 3.30.(목) 석간 > 배포 2023. 3. 29.(수)

미(美)·유럽연합(EU) 자국우선주의 대응에 범부처 통상 역량 집중키로

- 제32차 통상추진위 개최, 주요국 통상현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경제동반자협정(IPEF·EPA) 추진계획 등 논의 -
- 기업의 수출·투자 확대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 대응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경제동반자협정(IPEF·EPA) 추진 가속화 -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대응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제32차 통상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개최하고, 주요국(미국, EU, 일본) 통상현안 대응방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대응계획,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방향, WTO 수산보조금 후속협정 동향,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 방안 등 총 5건을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회의개요 참고)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우리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통상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발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미국 등 각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우리 기업의 부담 요인을 최소화 할수 있었고, 최근 발표된 EU의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도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인플레감축법(IRA) 가이던스에 대해 지난해부터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작년 12월 공개된 미 재무부 백서에는 우리 업계의 이해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바, 조만간 발표 예정인 IRA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따라 통상협력 확대와 수출 규제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상회담 성과가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일본과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했다.

이날 통추위에서는 현재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의제별 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IPEF는 무역 규범과 함께 공급망,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공정경제 등 인태지역의 당면 과제를 주요 의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금년 2월 특별협상, 3월 2차 협상을 통해 협상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IPEF가 인태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 확대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IPEF와 함께 우리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양자 차원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도 추진된다. EPA는 상대국 여건에 맞춰 기존 FTA 보다 자유화·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요소는 강화한 무역협정이다. 산업부는 금년 10개 이상의 EPA 협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 아시아-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조지아가 첫 번째 체결 후보국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해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 EPA 추진도 계획중이다. 아울러, 작년 6년만에 재개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도 오는 4월 9차 공식협상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엄중한 수출 상황을 감안, 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만큼 오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EPA, SECA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가까운 시일내 상대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어서 작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이후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와 후속협상이 진행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정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플랜트는 '20년 이후 꾸준히 200억 불 이상의 수주 규모를 유지해왔으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활력 제고의 전략 분야이다. 정부는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를 300억 불로 설정하였으며,(22년 242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참 고】 제32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담당 부서 <총괄>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조수정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형건우 (044-203-5628)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책임자	팀 장	장미화 (02-2100-1370)
		담당자	사무관	노정림 (02-2100-1376)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안창용 (044-203-5740)
		담당자	사무관	박용균 (044-203-5742)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박용한 (044-200-5380)
		담당자	사무관	오성택 (044-200-5381)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유성우 (044-203-5680)
		담당자	사무관	마선영 (044-203-5681)

※ 안건별 담당자

안건			담당자	연락처
1호	주요국 통상현안 대응방향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	조수정 과장 형건우 사무관	044-203-5620 044-203-5628
2호	IPEF 협상동향 및 대응계획	(산업부) 인태통상기획팀	장미화 팀장 노정림 사무관	02-2100-1370 02-2100-1376
3호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방안	(산업부) FTA정책기획과	안창용 과장 박용균 사무관	044-203-5740 044-203-5742
4호	WTO 수산보조금 후속협정 동향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	박용한 과장 오성택 사무관	044-200-5380 044-200-5381
5호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 방안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	유성우 과장 마선영 사무관	044-203-5680 044-203-568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제32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 회의 개요

○ **일 시** : ‘23.3.30(목) 10:00~11:30

○ **장 소** :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 석** :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관계부처*

*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식약처, 산림청 등

□ 상정 안건

① 주요국 통상현안 대응방향

②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동향 및 대응계획

③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방안

③-1 한-에콰도르 SECA 협상동향 및 향후계획

③-2 (서면) 한-조지아 EPA 및 한-몽골 EPA 협상 추진계획

③-3 (서면) 바이오 EPA 추진계획

④ WTO 수산보조금 후속협정 동향

⑤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 방안

□ 진행 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5)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5)	안건 보고	담당과장 보고
(’65)	토 론	참석자
(’5)	마무리 발언, 폐회	통상교섭본부장